[UCI]I804:24011-200000233080

2006년 2월
교육학석사 음악교육 학위논문

# 음악 교육이 EQ형성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김 은 아

# 음악교육이 EQ 형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usic Education to EQ

2006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김 은 아

# 음악교육이 EQ 형성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서 영 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음악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6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김 은 아

김은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채규열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혜경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서영화 (인)

2006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년 2월
교육학석사 음악교육 학위논문

# 목 차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제한점

## Ⅱ. *EQ*와 음악교육

1. EQ의 이론적 배경
2. 음악교육의 의의

## Ⅲ. 음악교육과 *EQ*의 관련성

1. EQ와 음악의 감상교육
2. EQ와 음악의 표현교육
3. EQ와 음악의 이해교육

2006년 2월
교육학석사 음악교육 학위논문


## Ⅳ. 음악교육을 통한 *EQ*의 향상 방안

1. 음악의 이해를 통한 EQ의 향상방안

2. 음악의 표현교육을 통한 EQ의 향상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2006년 2월
교육학석사 음악교육 학위논문

# 표 목 차

<표-1> 감성지능의 역사 …… 5
<표-2> 음악감상의 원리 …… 17
<표-3> 음악감상의 방법 …… 17
<표-4> 가창표현의 방법 …… 19

2006년 2월
교육학석사 음악교육 학위논문

# ABSTRACT

## The Effects of Music Education To EQ

Eun-ah Kim
Advisor: Prof. Young-hwa Seo Ph.D.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From prehistoric times up to now, Music has influenced a lot on human life. Furthermore, more importance is being placed on Music as well as other art areas because of its influence on human senses and thus on the spirits and the souls too. Therefore, the object of this study will be to provide students with appropriate Musical experiences as part of holistic educa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Musical education affects the emotional development, and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Musical education and EQ.

First, we will examine that Music plays the crucial role as part of

holistic education with its emotional affection to human by considering the concept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EQ.

Second, we will see how greatly Music has been influencing on the formation of human beings and why Music should be learned through examining the records regarding the historical changes of Musical education from the ancient Greek up to these days.

Third, we will understand the correlation between EQ and the education of appreciation, expression, and understanding, as well as the value and principles of Musical education.

Fourth, based on the theoretical grounds, the methods to improve EQ by means of Musical education and, in addition to that, the role of Music to emotional stabilization and balanced character formation will be presented.

In conclusion, not only the affection to and the interest in Music but also even the emotional development depend on how to teach Music to students. Thus, we have to keep in mind the importance of Musical education as much as that of other arts, and the fact that the cultivation and improvement of basic abilities needed in Musical experiences and activities are helpful in developing good qualities and

influential in human emotions. We hope that the better environment and direction of Musical education we have, the better effects on improving EQ, sociality, and relationship will be resulted in.

# Ⅰ.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의 교육적 현실은 입시위주와 암기위주의 교육적 환경 속에서 오직 지식전수만을 위한 반쪽 교육이 만연되어 왔고 그러다보니 인격형성과 무한한 잠재력 개발은 무시된 채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적인 가치관이 형성 되어 왔다.

산업화속에서 교육환경은 질적 양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어떤 특정 기법 위주의 사회로부터 지식의 실천을 특성으로 하는 사회로 전문영역과 영역간의 단절이나 고유성을 특징으로 하는 수직적 사회로부터 다문화 사회로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로 전환하게 되면 직업구조, 교육기능, 개인의 생애, 국가간의 관계 등이 완전히 변화되어 이에 적합한 인재와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교육전반에 걸쳐 하나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모든 교육의 기초를 EQ라는 개념이 대두되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EQ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능력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살기 위한 능력이며, 타인과 타인의 문화와 인격에 대한 존중,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안전을 함께 생각하는 능력이다. 또한 EQ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이다. 인간의 정서적 영역을 적절히 조절하고 통제만 할 수 있다면, 인지 영역이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고 인간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한 분명해 질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학습을 통해 인간 행동을 적절히 수정함으로써 보다 서로 나은 인격 형성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EQ개념 정립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감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음악교육의 역할을 연구해야 한다. EQ개념과 교육적 가치를 파악하고 음악교육과의 관련성을 찾아 음악의 이해, 표현 교육을 통한 그 향상 방안을 밝히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먼저 EQ의 개념을 파악하고 그 필요성과 역할에 대하여 고찰한다. 또한 음악교육의 정의와 역사에 대해 재조명한다. 그리고 음악교육의 감상, 표현, 이해 영역을 통해 그 중요성을 인식하며 그 영향뿐만 아니라 향상 방안을 고찰한다.

더 나아가 EQ와 예술적 교육이 관련성은 있지만 이론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EQ의 개념을 음악교육을 통해 더 먼저 관련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현시점에서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며 EQ의 가치를 발견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EQ라는 주관적 특수성으로 인해 이론적 정립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관련성은 개개인의 다른 상황을 통합하기보단 가장 보편적인 상황을 가정하였고, 그것을 중심으로 음악교육의 더 나은 향상방안을 위해 현실적 교육보다는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여러 EQ테스트가 있었으나 각자의 주관적 해설에 따른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표준화 된 것이 없었을 뿐더러 다른 예술분야와 다르게 음악교육과 EQ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미흡해서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앞으로 이에 관련된 많은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감성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II. *EQ*와 음악교육

## 1. 이론적 배경

### 1) 등장배경 및 개념

사실 정서 또는 감정이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상당히 오래 전부 터 있었던 것이며 결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현대에 와서 다시 EQ가 쟁점화 하게 된 연유는 IQ개념에 대한 한계성과 인간의 지적 활동과 감성적 활동을 다루어 온 신경해부학적 연구의 발전과 관련되며 오늘날 산업화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에 대한 평가기준의 변화 양상과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포괄해서 우리 사회의 인성교육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학습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의 갯수는 무려 2천 1백 40억 개나 된다고 한다. 인간의 능력이란 학습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뇌세포 조합의 한 형태이며, 인간은 살아가면서 온갖 종류의 교육이나 훈련 및 연습, 그리고 경험과 체험을 통해 새로운 능력을 개발해 나가는 존재이므로 끊임없이 <뇌세포 조합>을 만들어 가는 능력에는 몇 가지 구분되는 종류가 있다.

첫째는 IQ적인 능력으로 지식과 문제 해결능력이다.

기억력・수리력・지각력・추리력・공간지각력・어휘력・문장구사력 등이 그 기초 능력이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영어・수학을 학습하고 물리・생물・화학・지학을 공부하여 지식과 문제 해결력을 쌓게 한다.

둘째는 PQ적인 능력으로 신체운동 능력이다.

이른바 신체운동 능력(Physical Quotient)이라는 것으로 손발을 이용하는 능력(뜨개질, 무용, 연극)과 신체적 건강성 및 운동, 스포츠 학습능력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는 EQ적인 능력으로 감성과 정서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다.
주로 예술적인 분야로 지능적인 능력보다는 인간의 감정과 정신의 해결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한계를 극복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3가지 능력 중에서 인류는 IQ와 PQ적인 능력에만 매달려 왔고 EQ는 가장 소홀히 취급되어 왔으며 현재도 과거에 비해 별반 나아진 게 없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도덕과 인간애의 위기는 바로 이런 EQ의 미개발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다.[1)]
이를 위해 감성지능의 연구에서 감성을 지능으로 최초로 규정한 사람은 Gardner(1983)이며 미국 예일대학의 심리학자 Peter Salovery와 뉴 햄프셔대학의 심리학자 John Mayer 가 처음으로 제시한 개인의 감정처리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인간 내적인 지능 혹은 인간 상호적 지능이라는 용어 대신에 감성지능(Emotioal Intelligence:EI)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보다 보편적인 관심거리로 등장 된 것은 EQ(Emotional Quotient)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감성지능은 과학적으로 제시한 미국의 하버드대학 심리학박사 Daniel Goleman이 쓴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부터 이다. 그 후 1995년 10월에 시사 주간지 Time지에 EQ에 대한 기사를 표지기사로 다루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기 시작했다.[2)]

이렇듯 감성지능(EQ)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일반인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표-1>은 감성지능의 역사를 나타낸 것이다.[3)]

---

1) 김언주(1998.2). EQ의 이해

2) 배은주(1999.6), "무용전공자와 비 전공자의 감성지능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3) 이금희(2003.12). "아동의 음악 흥미도와 감성지능과의 상관성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표-1> 감성지능의 역사

| 학자 | 다지능이론중 요인 | 하위요인 |
|---|---|---|
| Gardner (1983) | 1. 개인내의 지능<br>2. 대인관계 지능 | 1) 집단 조직하기<br>2) 해결점 찾기<br>3) 개인적 관계<br>4) 사회적 분석 |
| ↓ | 감성 지능의 영역 | |
| Salovey, Mayer (1990) | 1. 정서의 평가와 표현<br>2. 정서의 조절<br>3. 정서의 활용 | 1) 자아- 언어적, 비언어적 측면<br>2) 타인- 비언어적 인식, 감정이입<br>1) 자아조절 2) 타인조절<br>1)융통성 있는 계획 2) 창조적 사고<br>3) 주의집중 전환 4) 동기화 |
| ↓ | 감성 지능의 영역 | |
| Salovey<br>↓<br>Goleman (1995) | 1. 자기감성 인식<br>2. 자기감성 조절<br>3. 동기화<br>4. 타인감정이입<br>5. 대인관계 | 1) 자아인지<br>1)충동억제 2) 만족감 지연<br>1)인내력 2) 긍정성<br>3)낙관론 4) 충만 |

EQ는 인지지능(Intelligence)에 대비되는 말로써 감정과 느낌을 조정할 줄 아는 능력을 가리킨다. EQ의 개념을 종합하면 자신 및 타인의 감성을 인식하고 통제하며 동기화 시키고 타인의 깊은 감성을 읽어내어 부드럽게 조정하는 능력, 좌절과 고통을 극복하고 희망을 가지며 위험에 대처하고 대인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는 사회적 조화능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은 동일한 IQ의 사람 중에서 한 인간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되며 결론적으로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은 우리가 현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인관계, 상황의 대처

능력, 자기 조절력 등 보다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고, 이것을 수치화 한 것이 감성지수(EQ)인 것이다.[4)]

### 2) 감성지능의 구성요소

감성지능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다.

#### (1) 정서인식능력

정서인식이란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재빨리 인식하고 제대로 알아차리는 능력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능력, 자신의 감정이 발생한 이유를 아는 능력, 감정과 행동 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능력으로 구성된다.

Maertin과 Boeck은 자신의 감정상태를 평가하고 명명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모든 감성지능의 초석이 되며, 대부분의 다른 감성들은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왜 느끼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룰 수 있고 억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돈 할 수 있다.

이것은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정서지능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순간순간 자신의 정서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심리적 통찰과 자기 이해의 결정적 요인이다.

#### (2) 정서표현능력

정서표현능력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적절한 말로 표현할 줄 알고 상황에 맞는 행동이나 표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과도하게 표현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말과 몸짓으로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

4) 배은주, “무용전공자” 8.

이 능력은 정서의 정보 처리를 진행시키고, 적절한 사회적 기능을 필요로 한다. 정서표현능력은 대상에 따라 자아와 타인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대상 안에서 언어적, 비언어적 내용으로 구분되어진다. 이런 능력이 풍부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보다 적절하게 이끌어 갈 뿐만 아니라 결정적 순간에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한다.

(3) 감정이입

감정입이란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그 사람의 슬픔이나 기쁨을 자신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를 공감이라고도 한다. 이 공감 능력은 이타심 또는 자비심이나 사랑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특히 타인의 어려운 처지에 공감하여 도울 줄 아는 이타적인 행동의 근간이 되는 능력이라 하였으며,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는 능력, 타인의 감정에 민감해지는 능력,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 타인을 이해하고 애정을 갖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타인이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은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4) 정서조절능력

정서조절능력이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말하며 정서지수 요소를 구성하는 요인들 중 특히 개인을 사회적응으로 이끌어 가는데 꼭 필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불쾌한 기분을 잘 참아내고 유쾌한 기분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며 다른 사람의 감정에 자신을 맞추어 자신을 자제 할 줄 알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기분까지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다. 정서조절은 학습자의 학습전략과 관련된 자기조절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처음 개발 되었다. 이 척도에 의하면 자기 조절을 잘 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적절한 목표를 설정 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한다. 적합한 인지전략을

사용하여 계획, 자기평가, 자기강화, 도움 구하기. 자기 관리 등을 잘 할줄 아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서지능과  관련된 자기조절은 충동성, 공격성 등의 감정통제 능력을 의미한다.

(5) 정서활용능력

정서활용능력은 자신의 정서 또는 기분을 인식하거나 조절하는데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공부나 친구관계 등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즉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자신의 정서를 잘 표현하느냐는 것이다. 여기서 대인관계 능력의 요인으로는

첫째, 집단을 조정해 갈 수 있는 능력이다.

둘째, 협상 능력을 들 수 있다.

셋째, 인간적 결합 능력이다.

넷째, 사회적인 분석 능력이다.

정서활용능력의 기본 가정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정서 상태에 있을 때 지적인 능력은 효율적으로 작용한다는 심리적 사실에서 기인하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고도의 지적능력을 요구하는 과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정서상태를 긍정적이고 유쾌해 지도록 의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정서활용능력은 보다 책임지는 능력,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치중하는 능력, 인내심을 갖고 충동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 능력, 학교 성적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포함한다.

### 3) EQ의 필요성 및 역할

한 나라의 미래는 지적 수준이나 기술력 등등 눈에 보이는 능력이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라든지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

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

또한 인간의 행복의 지수는 표면적인 부와 명예로만 평가 될 수 있는 거처럼 보이지만 그 또한 자기 계발이든지 자기만족 등등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정들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EQ는 생생한 삶 속의 대인관계를 통해서 가장 잘 개발된다. 사람 속에 섞여 진한 감정적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EQ를 높이는 중요한 방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EQ가 높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표현 할 줄 안다는 것이다.

유리 브론펜브레너는 미국 코넬대학의 유명한 문화심리학 교수였다. 그는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현상을 프로이트, 에릭슨과도 다르고 피아제, 콜버그와도 다른 아주 독특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생태학이 바로 그의 기본입장이다. 그의 메시지는 「한 나라의 미래는 기성세대의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의 정도와 질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그의 1960년대 중반 미국과 소련을 비교·고찰한 바 있다. 두 나라의 기성세대가 각자 자기네 나라의 젊은 세대에 어떤 종류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미래를 예측해보고자 한 것이었다. 그의 눈에 비친 미국과 소련 기성세대의 다음 세대, 즉 그들의 자네에 대한 관심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 그에게 있어서 지적인 능력이나 신체운동 능력에 대한 관심의 차이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그의 눈에 현격한 대조를 이루며 부각된 관심의 차이는 독립심의 배양과 복종심의 배양이었다. 미국인들은 자녀들이 18세 이전까지 갖추어야 할 삶의 미덕으로서 독립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었고, 그것을 배양하고 가꾸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소련인 들은 달랐다. 그들은 자녀들이 부모와 성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분석을 다룬 「미국과 소련의 어린이들」이라는 책의 말미에서 브론페브래너는 독립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기성세대는 결국 소련의 창의성이 풍부한 젊은

세대를 키워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복종을 강조하는 소련의 기성세대는 잘 사회화된 소련인은 기를 수 있을지언정 창의적인 소련인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언했다. 미국의 오늘을 버티는 힘을 그의 예언대로 「창의성 있는 자」들로부터 나온다. 와해된 소련은 결국 젊은 세대에게 시대정신에 맞는 관심을 쏟지 못한 60년대 당시 기성세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독립성을, 소련이 복종심을 강조했던 것처럼 나라마다 강조되는 EQ가 다를 수 있다. 시대적 적절성과 시대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EQ는 국가와 문화발전을 가속화시키며 그 나라의 미래와도 연결된다.[5)]

## 2. 음악교육의 의의

### 1) 음악교육의 정의와 역사

음악교육은 음악이 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며, 그들의 삶의 질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일로부터 시작한다. 음악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음을 통하여 표현하는 예술이다. 따라서 인간은 개인적인 사상이나 감정 등을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또 전달받기도 한다.

이에 음악교육은 인간에게 음악을 접하게 함으로써 보다 인간적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며, 음악을 접한다는 것은 음악적 사고를 통하여 음에 내재하여 있는 정신적인 힘과의 융합을 이루고 건전한 정신적인 힘을 영위하려는데 있는 것이며 또한 음악적으로 넓은 안목을 지닌 인간을 육성하여 안정된 생활과 원만한 생활의 소유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 음악교육이다.[6)] 또한 음악교육은 음악의 전문적 기술의 습득과 학문적 이론

---

5) 김언주. EQ의 이해

6) 김 정(2003), 음악교육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그리고 음악학습을 통하여 평소의 소양을 높이고 인간성의 발전을 위한 기초 능력의 배양을 기른다.

또 다른 음악교육의 특성은 고도의 과학과 기술발달의 원동력이 되는 인간을 창조하는 수단으로써의 음악교육이다. 이것은 최근의 음악교육의 높은 교육적 효용과 그 가치가 고조되면서 음악의 요소적인 기능에서 비롯되는 창조성의 계발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서 생긴 것이다.

음악교육은 예술교육의 일부분으로서 보통교육에 있어서의 음악교육의 목적은 결코 전문적인 음악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며, 넓고 깊은 음악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음악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며, 또 음악미를 어떤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즉 음악미의 이해, 감동을 제일차적으로 하고 이것을 통하여 높은 미적 정서와 풍부한 인간성을 육성하는 목표로 하고 있다.

음악교육의 역사는 음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고대의 여러 나라의 신화나 종교경전들에 증거로 음악이 존재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1)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음악 교육

고대 그리스의 교육의 주요 기능은 개인의 인격을 함양하고 왕성한 행동력을 기르는 데 있었고 그들 교육의 기본 목적인 개인의 지성적 발달을 위해 수사학을 , 신체적 발달을 위해 체육을 , 정서적 발달을 위해 음악을 가르쳤고 그들의 교육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취급된 것은 음악과 체육이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음악교육목적은 음악가를 만드는데 있지 않았다. 오히려 음악에 의해서 미적-도덕적으로 조화가 된 인간을 육성하는데 있었다.[7)]

고대 로마교육은 대부분 그리스의 교육 체제를 따르고 있었지만 음악 교육은 부분적으로만 실시하였고, 그리스의 철학자들에 의해 가치 지어졌던 음악교육의 의의는 점차 소멸되어 음악은 다만 오락적, 실리적인 필요를 위해 이

7) 최계숙(2002). 음악교육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르렀다.

(2) 중세의 음악 교육

중세의 음악교육은 종교적 교화라는 말로 특정 지어지며 기독교회가 교육을 조정하는 역할과 지식의 보급처 구실을 하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음악교육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수도원의 부속학교였다. 이 시대에는 예배를 위한 음악으로 주로 가창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악보와 창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계명창법이 창안되어 음악 지도의 방법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중적 음악 예술적 의식을 높이고, 기보 방법의 창안 및 창법의 개선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으며, 이로써 음악 교육 방법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14-16세기, 문예 부흥기의 음악 교육

중세시대의 교회 세력이 쇠퇴하면서 문예 부흥이 일어났고 이 운동은 그리스와 로마의 정신을 부흥하고, 자유롭고 고상한 인간성을 추구하는 인문주의 운동이었다. 이와 같이 중세가 지나고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자 인문주의가 일어나 교육을 존중하게 되었다. 루터에 의한 종교 개혁이 사회와 문화 전반에 강한 자극을 주었으나 음악 교육에는 변혁을 일으킬 만한 요인이 되지는 못했다. 결국 이 시기의 음악은 종교적 교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그쳤다.

(4) 17세기 음악교육

유럽을 지배하던 사조는 실학주의로 언어 또는 문학보다는 자연현상과 사회 제도를 더 중요한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실질의 도야를 실현하려 했던 교육 사조이다. 이 사조는 전반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의 내면적, 미적심성의 중요성과 음악 교육의 인간 교육적 가치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7세기 전반적인 사회 및 교육의 풍조가 공리적, 실리적 측면으로 흐름으로써 음악 교육이 인간 교육의 기반으로서의 의의와 목표를 잃고 소외당했던 시기

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삶과 예술, 다양한 음악 작품, 기초적인 음악 기능, 음악의 개념과 원리, 음악성과 창의성, 감수성과 표현력, 음악적 정서와 애호심, 인성과 가치관을 모두 포괄 할 수 있는 통합체로서의 교육을 지향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8)]

(5) 18세기 음악 교육

이 시기에는 대표적인 계몽 사상가인 John Jacques Rousseau(1712-1778)는 음악의 교육적 중요성을 역설했으며, 음악 교육 방법의 탐구에도 큰 업적을 남겼다. 특히 그의 저서 『Emile』에서 어린이의 음악 교육을 위한 새로운 개념 제시를 하였고, 음악 교육에 있어서 내용과 방법의 적합성을 강조하고 어린이의 개체성과 창조성을 존중했던 그의 식견은 근대 음악 교육의 기본 원리가 될 만큼 탁월했다. 또한 Johann Pestalozzi(1746-1827)는 Rousseau와 범애파[9)] 교육자들의 영향을 받고 교육의 실천면에 귀한 업적은 남김 사람으로서 음악을 종교적, 도덕적 인간 도야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존중하였고 음악이 모든 어린이를 위해 필요한 교과임을 인정하였다. 이 시기에는 사회 및 교육 전반에 걸쳐 대 변혁의 시대였으며, 음악 교육의 면에서도 심한 퇴조와 현저한 발전을 보였던 시기였다. 특히 보통 학교 제도가 확립되고 교육의 보편적 원리와 음악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텄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시기라고 하겠다.

(6) 19세기 음악 교육

근대화, 자유화, 다양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는 주지주의[10)] 교육사조의 영향으로 비교적 오랫동안 음악 교육에 있어서 침체의 기간을 거쳤지만 다시 진보의 기미로 인해 미국의 공립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을 시작으로 음

8) 채후석(2001). 음악교육을 통한 인간형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9) 범애파란 독일의 계몽주의적 교육학파 및 교육운동으로 범애주의 교육사상을 주창하는 학파로서 바제도(J.B.Basedow)가 중심이 되어 독일에서 일으킨 교육활동이다. 교회지배의 종교개혁을 타파하기 위한 바, 제도의 활동이 학교개혁을 위한 운동이었다.

10) 주지주의: 인간의 마음은 지(知), 정(情), 의(意)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지성·이성·오성과 같은 지적인 기능을 다른 감정이나 의지의 기능보다도 상위에 두는 견해.

악 교육은 전반적인 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맞게 되었다. 1838년 Boston 교육 위원회는 음악을 교과 과정에 포함하도록 허가하였고, 1839년 Massachusetts에 첫 사범학교가 설립됨으로써 미국의 일반 학교 음악 교육이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었다.

(7) 20세기 음악 교육

보통 교육 제도의 확산으로 공립학교들이 설립되고 학교에서 음악 지도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여러 나라들의 음악 교육은 학문주의 교육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였으며, 오늘날의 음악교육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그 제도와 내용에 있어서 아직도 전통주의를 고수하며, 미국은 민주주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기회균등원칙이념 아래 생활양성을 그 주된 목표로 삼아 새로운 음악교육의 방법이 실시되고 있다. 미국의 음악 교육은 1885년까지의 '음악 교육의 개척기'를 거치면서 학교 제도의 조직화, 보통 교육의 일반화, 전문 음악 교사의 증가 등에 힘입어 급속히 발전하였다. 1929년경 경제 대공황 이후에는 John Dewey(1859-1952)의 경험주의 교육이론의 영향으로 학생 중심, 경험 중심의 음악 지도가 주된 경향이 되었고, 종래의 가창 활동 위주의 음악 수업은 기악, 창작, 감상 활동 등을 포함함으로써 그 영역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Jaques Dalcroze(1865-1950), Carl Orff(1895-1982), Zoltan Kodaly(1882-1967), 등의 음악 교육 이념과 방법이 도입되면 학교의 음악 교육은 점점 활발해졌다.[11)]

우리나라도 개화기 때 근대 학교의 설립으로 음악 교육의 시작되었고 일본의 것과 비슷하나 미국의 새로운 음악 교육 이념과 제도를 받아들여 현재 이를 발전시키고 있다.

---

11) 채후석(2001). 음악교육을 통한 인간형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2) 음악교육의 목적

음악교육은 인간교육의 출발이며 창조적 인간 형성을 위한 모든 교육의 기반이다.[12] 이와 같은 음악교육의 목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발전시켜서 음악적 언어와 음악적 창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13] 현 교육의 목적이 전인적 인간 양성으로 하는 한 음악교육의 의의는 인간의 인격완성에 기여 하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와 같은 인간성 도덕성 상실 시대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시달린 마음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으로 음악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음악 생활은 상실된 인간성을 되찾는데 좋은 방법이며, 음악교육에서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음악교육은 음악적 생활의 향유와 표현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어느 교육보다 조화 있는 생활교육이며, 인간성 함양을 위한 중요한 교육이다.

음악교육은 인간의 사회에 대한 적응력만은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개인의 창의성과 욕구를 키워주어야 한다. 즉 여기서 이루어지는 음악적 교육이란 생각이나 감정을 미적으로 질서 잇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교육에 의해서 학생들은 스스로의 경험을 출발점으로 하여 의식적으로 행동을 세련시키고 감성을 육성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창조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Ⅲ. 음악교육과 *EQ*의 관련성

## 1. EQ와 음악의 감상교육

음악의 감상은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12) 이홍수(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13) 최성경(2002). 음악교육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이해한다는 점에서 EQ의 자기감정 인식능력과 공통점을 지닌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지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해 순수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애정을 느낄 때 발휘 될 수 있으며 비슷한 경험에 대한 감정인식이 있을 때 더 쉽게 얻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음악 감상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음악을 감상함에 있어 자신의 내부에 기억된 현상이나 감정을 무의식중에 찾으려고 한다. 과거에 음악을 들었던 상황이나 현상을 기억하면서 느꼈던 유사한 이미지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과거의 상황들과 어떻게 다른지 혹은 같은지 생각하게 된다.

만일 음악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자신이 느꼈던 것을 표현한다고 생각 했을 때 보다 의미 있게 듣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음악 감상교육과 자기감정인식은 그 인식의 과정에서 유사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어떤 대상을 처음 대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로부터 시작되어 자신의 경험, 생각, 감정과 유사하거나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아는 자기 인식이 있을 때 그 대상에 대한 감정을 이끌어 진정한 의미의 감상과 타인의 정서인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또, 음악 감상교육은 자기감정 조절능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음악 감상은 다양한 정서 표현을 들으면서 선율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고 나아가 생활 속에서 미의식을 적용 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자기감정 조절능력은 자신의 풍부한 정서를 적절하게 조화시키고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객관적인 인식과 판단을 한 후 부정적인 감정이나 급격한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이나 평온한 정서로 전환시키려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음악 감상교육과 자기감정 조절능력은 풍부한 정서상태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정서표현에 대한 적절한 판단과 부정적인 정서를 아름다운 정서로 승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깊은 관련이 있다.

음악 감상교육으로 다양한 정서를 표현하는 음악작품들을 들으면서 예술적 감성을 기를 수 있고 감상 후에 갖는 미적 정서의 고양은 심리적 만족감과

안정감을 갖게 하여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아름다운 음악 작품을 감상하면서 자신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와 부정적인 정서의 원인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그 원인을 찾아내는 자아성찰의 인식작용을 훈련시킨다.
결국 음악 감상교육은 정서의 함양과 조화를 가능하게 하고 불안한 정서를 조절하는 등 자기감정 조절능력에 매우 유익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음악 감상을 할 때 <표-2>의 원리를 알고 분석하고, <표-3>은 감상의 방법을 통해 다양한 정서 함양과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는 자기감정 조절능력에 유익한 영향을 주고 있다.[14)]

<표-2> 음악감상의 원리

| 종류 | 이해 | 적용의 예 |
|---|---|---|
| 분석적 감상 | 구성적 요소(흐름결, 가락, 화음, 형식, 구조, 조직) 및 표현적 요소(빠르기, 셈여림, 음색, 음질), 악곡의 부분적 윤곽 | 구성적 요소별 감지, 표현적 요소별, 감지하기, 주선율, 반주부, 대선율 및 조바꿈 감지하기 |
| 종합적 감상 | 구성 요소들 간의 관련성, 전체적 윤곽, 악곡과 표현성, 악곡의 의미 | 음향을 종합적으로 감상하기, 음악적인 상(像)형성하기 |
| 음악의 종류 | 악곡의 형식, 양식, 연주 형태 | 형식, 양식, 연주 형태 등과 관련지어 듣기 |
| 음악의 배경 | 악곡과 인간적 배경, 음악 시대적 배경, 지역적 및 사회적 배경 등의 관계 | 작곡자, 연주자, 음악 시대, 지역 및 사회적적 배경 등과 관련지어 듣기 |
| 악곡의 미학적 성격 | 관련주의적 관점, 형식주의적 관점, 표현주의적 관점, 절대 표현주의적 관점 | 악곡의 성격에 따라 알맞은 관점에서 감상하기. |

14) 이홍수(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새광출판가.

<표-2>음악 감상 방법

| 내 용 | 적 용 의 예 |
|---|---|
| 감지 및 감상 | 구성요소를 분석적으로 감지 판별하기, 악곡의 부분적 윤곽(주선율, 반주부, 대선율, 조바꿈 등)파악하기, 구성과 표현성을 종합적으로 감상하기, 악곡의 전체적 윤곽 파악하기, 예측하며 듣기, 상상하며 듣기 |
| 신체 반응 | 음악 요소에 반응하기, 음악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반응하기 |
| 악보 보며 듣기 | 악보(score)를 보며 듣기 |
| 악곡의 미학적 성격에 따른 감상 | 관련 대상을 생각하며 듣기, 악곡 형식을 분석하며 듣기, 표현 의미에 중점을 두고 듣기, 종합적으로 듣기 |

## 2. EQ와 음악의 표현교육

음악이란 음을 재료로 하여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 예술이다. 음악은 사람의 특정한 느낌이나 감정, 특별한 분위기, 정경, 사건, 사실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15] 그러므로 사람의 감정을 담고 있는 음악의 표현 교육은 EQ에 있어 자기 동기화 능력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EQ에 있어 자기 동기화능력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 음악작품을 보면서 자신의 신체적인 상태나 감정, 생각이 내포된 정서를 인식하고 자신에게 새로운 정서를 표현하도록 부추기는 능력을 말한다. 음악을 통해 자아 발견을 하고 음악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참아왔던 정서의 벽을 제거 할 수 있으며 훌륭한 연주를 통하여 자신의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음악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통하여 표현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인간의 개인적인 사상이나 감정을 음악이란 매개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

15) 이홍수. 음악여행. 1994.

기도 하고 전달 받기도 한다.

음악 작품은 어떤 대상을 명확하게 묘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과 창조성이 작용하는 가운데 인간의 객관적인 느낌이나 감정의 심상(image)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그러한 심상을 음악 표현 형식을 통하여, 즉 음악의 형식과 내용이 융합된 상태로 상징화함으로써 생성된 것이다. 음악에서 이러한 불명확성은 오히려 하나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다. 같은 음악작품을 감상을 해도 서로가 갖고 있는 음악적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감흥도 다를 뿐 더러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다. 왜냐하면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과정 속에서 연습된 바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명시적이면서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그 표현 내용은, 작품의 음향을 감각적으로 예민하게 수용하는 동시에, 음악적 표현 양상을 자신의 삶 속에의 갖가지 경험들과 관련짓는 가운데 진지하게 탐색할 때 비로소 서서히 고개를 내미는 것이다. <표-3>은 음악의 전달 방법 중 가창의 표현방법이다.

<표-4> 가창 표현의 방법[16)]

| 내용 | 적용 |
|---|---|
| 발성 및 발음 | 바른 자세, 호흡, 공명, 발음으로 부르기 |
| 듣고 부르기<br>악보 보고 부르기<br>외워 부르기 | 계이름으로 듣고 부르기, 가사로 듣고 부르기<br>악보 보고 계이름으로 부르기, 악보 보고 가사로 부르기<br>계이름으로 외워 부르기, 가사 외워 부르기 |
| 혼자 부르기<br>함께 부르기 | 독창하기<br>제창, 돌림노래 중창, 합창하기, 지휘에 반응하기 |
| 창의적으로 부르기 | 악곡의 분위기를 살려 개성 있게 부르기 |
| 지휘하기 | 2,3,4,6,5박의 가창 곡 지휘하기 |

이렇듯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EQ에 있어 자기 동기화의 능력

16)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1990.

과 같은 맥락을 지니게 되고 음악은 자신의 정서상태를 소리로 들려준다는 점에서 음악교육의 표현영역과 자기 동기화 능력이 깊은 관계를 갖는다.

## 3. EQ와 음악의 이해교육

음악은 하나의 이미지이다. 직관적인 느낌에서 시작해서 감정을 이끌어 내고 거기서 또 다른 정서를 창조해낸다. EQ도 감정에 기초한 정서의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정서의 출발점에서 시작되는 음악의 이해와 EQ가 상호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악의 이해교육은 악기의 이해, 음악 미학, 음악사의 이해교육이 그 내용에 해당된다. 음악을 통하여 평화로움, 분노, 무거움, 유동, 탄력, 포화감등을 은유함으로써 인간적 현상을 내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그러한 음악적 체험은 더 의의 있는 것이 된다.[17]

또한, 음악적 체험으로 자신의 내면을 인식하고, 연주를 통해 음악적 사고와 질서를 소리로 현실화 시키는 악기의 이해로 자기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있게 된다. 즉 악기 연주를 통해 자기만족과 자기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잠재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기를 수 있게 된다.

미학은 미적 대상을 통해 미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으로 자율적인 정신적 존재로서의 음악을 예술적 가치내용의 측면에서 연구하는 음악미학을 통해 미적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적 교육은 미적 향수, 미적 경험, 미적 인식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EQ에 있어 자기감정조절능력과 깊은 연관이 있다. 미적 향수를 경험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정서의 조절능력을 보다 쉽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적 향수를 가능하게 하는 미학교육은 감성지능의 발달에 도움을 준다.

---

17) 이홍수(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 Ⅳ. 음악교육을 통한 *EQ*의 향상방안

## 1. 음악의 이해를 통한 EQ의 향상방안

음악의 이해를 통한 교육을 하면서 다루게 되는 음악의 이론을 악기론과 음악미학, 음악사로 나누었다.

따라서 학습자의 EQ의 향상방안에 악기 이해와 음악미학을 통한 미학적 아름다움의 이해, 음악사를 통해 음악가와 시대적 배경에 따른 음악 작품을 이해하게 한다.

### 1) 악기를 통한 이해

악기란 음악적 사고와 질서를 소리로 현실화 시키는 모든 기구이고 음양, 하늘과 땅, 우주의 원리를 담고 있으며, 조화, 통일 등의 예술적 형식의 원리와 과학적 분석을 포함한다. 이런 원리는 EQ에 있어 자기감정 조절능력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자기감정 조절능력이란 자신의 감정을 조화롭고 풍부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감정에 몰입하지 않도록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으로 음악의 조화와 균형과 같은 미적형식의 원리에 적용된다.

EQ의 향상을 위하여 악기에 대한 수업을 할 때 정서조절에 관한 내용을 도입하도록 한다.

음악의 조화, 질서, 형식의 개념을 설명할 때 우리의 감정이 조화롭게 표현되지 못하고 부정적 감정만 치우칠 때의 경험을 표현하게 한 후 악기들이 상호 조화되지 못하고 불협화음이 표현 될 때의 예를 적용 시킨다.

다시 말해 음악교육을 할 때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조화의 원리와 인간정서의 관계를 이해시키는 한편, 악기연주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과 풍부한 감정을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을 자연스럽

게 내면화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학습자는 악기에 대해 알고 연주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경험에 어떤 형식을 부여하게 되고 학습자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확장시켜 나간다.

### 2) 음악미학을 통한 이해

바움갈덴의 저서「미학」에서는 “미학은 감성적 인식의 학”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미학교육이 미에 대한 본질이나 감성의 수준을 지식의 이해로 끌어올리는 인식의 과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각적인 것을 넘어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적절히 표현하는 EQ의 인식작용과 비슷하므로 미학적인 교육으로 EQ의 향성을 기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미학의 정신적 인식[18]에 해당하는 철학적 물음을 음악교육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인간은 무엇을 아름답게 느끼는 것일까?,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않은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등과 같은 미의 인식과정은 질문과 대답 토론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 때 교사는 학습자들의 인식과정을 검토하면서 미의 여러 가지 개념을 알게 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표현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 3) 음악사를 통한 이해

음악사란 음악에 관한 모든 역사적 기술이다.[19] 즉, 음악작품, 음악가, 역사가 어우러져 있는 학문이므로 음악작품을 이해하는데 미학과 함께 도움을 준다.

음악사를 배우는 데 있어 특히 음악가의 삶을 알고 그의 안목과 지식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정서를 읽고 그것에 대한 감정이입과 더불어 나의

18) Wladyslaw Tatarkiewicz(1992). 미학의 기본 개념사. 미진사.
19) 음악대사전(1996). 세광출판사.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EQ에 있어 감정이입능력과 감성인식능력을 향상 시키고 더 나아가 타인의 정서를 대변하고 위로하는 의미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음악사를 가르칠 때에는 정서지능 발달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찾는다면 작품과 작가에 대한 연대기적 이해만을 가르치기보다는 연상법을 통하여 작가가 바라보았던 인간의 삶이나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비중을 두는 것이다.

연상법에 관해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창의성의 근원은 상상력이고 , 상상력의 원천은 연상력이다. 결국 연상력이 풍부해야 창의성이 유창하다는 말이 된다. 연상법에는 자유연상법과 통제연상법이 있다.

(1) 자유연상법(free ass) : 어떤 단서, 대상, 주제, 방법, 상황을 제시하고, 문득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포착 제시하는 방법이다. '칠판'하면 생각나는 것들, '돈'하면 생각나는 것들 등이다.

사물이나 문제를 언어적 제시뿐 아니라 형태(형, 색, 입체), 소리, 몸동작 등을 제시하고 연상되는 것들을 찾게 할 수도 있다.

(2) 통제 연상법(regular ass) : 자유 연상에서 어느 정도 제한된 조건을 주어서 통제된 연상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어떤 단서에 이어질 다음의 발상들이 앞의 단서와 계속성, 상대성, 유사성, 인과성 등이 있는 것들과 한정해서 발상하게 하는 것이다.

'리'자로 끝나는 말하기, 낱말 끝글자 따서 말이어가기, 또는 물건과 여러 가지 사진이나 그림들을 관련시켜 생각하는 이미지 연상법 등이다.

이러한 연상법들은 활발한 상상력이 뒷받침 되어야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 2. 음악의 표현교육을 통한 EQ의 향상방안

음악적 표현은 자유롭고 솔직하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자아표현의 도구로 사용 될 수 있다. 이러한 자유로운 표현으로 창의성을 향상시켜 EQ를 발달시킬 수 있다.

실기지도의 방법은 표현 기술을 가르치는 외적인 지도와 표현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는 동기부여의 과정과 표현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음악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키도록 하는 내적인 지도의 측면에서 나타난다.

### 1) 외적인 표현교육

표현은 음악의 구조상 요구되는 것이며, 모든 표현적인 뉘앙스는 음악 구조상의 아름다움이나 의미를 풀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외적인 표현기술을 가르칠 때 교사가 취하는 감정 표현은 학생들의 EQ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 실기와 관련하여 교사는 자신의 정서표현에 주의를 기울어야 하고 표현의 논리가 갖는 교육적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1) 표현을 결정짓는 음악의 구조적 기능: 프레이즈는 음악적 표현의 핵심적인 존재이다. 학습자가 표현적으로 연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프레이즈를 하나의 종합으로 감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즉 감득한 경우 이에 대한 구성 의욕이 솟아나서 속도, 음색, 음량 등의 적절한 조작에 의해 표현하려 한다.

Matthay가 말한, '음악적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음을 계속적으로 연주해 보아도 그것은 전혀  무의미하다'고 하는 거처럼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 적당한 음량, 속도, 음색을 사용해서 "표현적 연주"가 되어야 하며 음악적 구조의 이해가 표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음악적 구조가 표현을 결정짓는 이유: 신체적 반응을 통하여 비로소 표현을 감득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음악에 있어서 표현이란 음악의 심체적인 이

해를 음으로 옮겨 놓은 것이며, 인간의 신체는 가장 기본적인 악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신체에 의하여 음악에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반응물이다.

(3) 음악 표현의 교육적인 지시: 실제 음악 지도에 있어서 표현적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자기 연주 속에 음악적인 표정을 나타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학습자의 음악적 표현에 대해 그 필요성과 아름다움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위의 음악적 표현을 위해서 정서표현에 주의를 기울어야 하며 교사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지니도록 한다.[20]

첫째, 확산적 사고의 과정을 거친다.

확산적 사고는 창의적 사고의 기본이 되는 융통성, 자발성, 독창성을 동시에 발달시킨다. 실수가 부끄럽지 않은 분위기가 조성되어 여러 가지 방법과 가능성을 시도해 볼 수 있게 하여 그들의 지식이나 이해, 기술들을 음악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또 어느 한 가지 특정한 방법보다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용납되어지는 분위기여야 한다.

둘째, 긴장해소의 과정을 거친다.

창작의 과정은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동기 유발 단계에서는 긴장해소가 선행 조건이 되어야 한다. 학습자가 활동하는 교실이 풍부하고 다양한 물리적 환경이 중요하다. 음악교육을 학교 내의 환경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연주홀이나 음악회장을 사용하도록 한다. 잘 계획된 프로그램은 교사의 지시가 없어도 학습자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셋째, 개방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학습자의 모든 아이디어를 수용적인 자세로 받아들여 활동 과정을 중요시한다. 심지어 이상하고 괴짜스러운 아이디어조차도 창조적인 발견의 시초이며 창의성을 발달시키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20) 이홍수(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출판사.

학습자 스스로 만들어 내도록 조장하고 창의성이 나타나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 교사와 학습자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 안락하게 느끼고 감상하고 연주하며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허용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학생들이 쉽고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지도할 때 학생들은 긍정적인 정서표현방법을 은연중에 배우게 되고 EQ는 향상된다.

EQ발달을 위한 또 다른 실기지도방법은 학생들이 악기소리의 다양성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악기의 종류에 따라 소리의 반응과 불협화음에 따른 감정표현을 경험함으로써 그 작업에 대해 토론을 통하여 확산적 사고에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알아야 한다.

이 밖에도 대인관계능력의 향상에 기여하는 관현악, 합창이 있다. 여러 사람과의 연주를 통해 한 악기를 가지고도 다른 표현이 가능함을 알게 하고 여러 악기를 통해 조화롭게 연주할 수 있는 방법도 터득하게 함으로써 조화의 원리와 통일감을 알게 한다.

이런 외적인 표현들을 통해 창의성과 상상력을 극대화 시키며 다른 사람과의 연주를 통해 대인관계능력이나 정서의 표현능력,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의 향상을 가져오게 되어 EQ를 발달시킬 수 있다.

### 2) 내적인 표현교육

내적인 표현교육은 실기 지도 방법에서 연주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거나 학습자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 등 EQ의 자기 동기화 능력과 감정이입의 능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내적인 표현을 통한 EQ의 향상을 돕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곡에 관련된 경험을 예를 들어 보이는 방법이다. 이 때 예시를 위해 곡의 배경을 제시하고 그 곡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보여준 후, 학생들의 생각을 말하게 한다. 다른 방향으로는 곡의 배경을 자신이 설정하게 한 후 그

에 대한 생각을 말하게 하면 효과적인 수업이 진행 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이 각자의 연주곡을 정한 후 연주곡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의 연주를 감상 한 후 그 표현에 대한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자신의 곡과 비교하고 악기소리에 대한 느낌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감상과정에서 느꼈던 감정을 재인식하여 실기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감상할 때 그 작품세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시대나 그 사람에 대해 감정이입을 해보고 그 음색이나 음향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실기 지도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연주에 애착을 갖고 표현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자신의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정서를 해소하고 더불어 안정된 정서를 갖게 하여 결과적으로 EQ에 있어 자기감정 인식능력과 정서표현능력의 발달을 가져오게 한다.

# Ⅴ. 결론

음악교육과 EQ의 관련성을 고찰해 보고 음악교육을 통하여 EQ의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본 결과, 음악과 EQ는 많은 관련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EQ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음악교육의 방향을 마련하였다.

음악교육과 EQ의 상관관계를 논의해 보았을 때 음악의 이해, 표현, 감상영역은 통합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EQ의 다양한 능력들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음악의 이해와 감상 교육은 감정을 통한 지적 인식과정이라는 점에서 EQ의 여러 능력 중 자기감정 인식능력, 자기감정 조절능력, 감정이입능력, 대인관계능력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음악의 표현 교육은 정서의 표현과 창의성의 계발 측면에서 자기동기화 능력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음악 교육과 EQ는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며 음악교육을 통하여 EQ의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Q의 발달을 위한 음악의 이해와 감상교육의 향상방안을 보면, 음악의 이해와 감상의 이론교육은 감정의 고조와 그 감정 조절에 관한 교사와 학생의 경험을 반복하여 음악형식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정서의 조절과 풍부한 정서의 조화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

질문하고 사색하고 대답하는 토론방식의 미학적 탐구를 이론교육에 적용하여 음악적 미에 대한 사고를 깊게 하고 자기감정 인식능력, 정서표현능력의 향상과 아름다운 정서를 함양하도록 하여 음악을 이해하도록 한다.

음악사를 배울 때 작곡가의 삶과 그 시대의 애환을 통해 인간을 향한 감정이입을 배우게 함으로써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대변하는 대인관계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표현교육인 실기교육은 감정 없는 표현보다는 정서표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심상표현은 사춘기적 성향의 학생들의 억눌린 정서의 표현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었다.

악기의 사용이나 표현기술을 가르칠 때 교사는 성실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야 무의식중에 이루어지는 자기 동기화의 능력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다양한 악기의 연주로 표현의 느낌과 음향의 풍부함을 경험하도록 하며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하게 한다.

오케스트라나 합창활동과 같은 여러 사람과 어울러져 함께 하는 작품들은 사회성 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인관계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독주와 적절히 편성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 되어야 하며 실기 지도 시 연주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작품을 감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성과 감정이입을 고취 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처음 표현하려는 감정이 충실히 표현될 수 있도록 음악적 체험을 지속시켜 자신의 작품에 몰입하고 애정을 갖게 함과 동시에

자기감정의 인식능력과 표현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음악교육방안을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앞으로의 변화의 세계에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대처하는 인재를 육성하게 될 것이고 EQ향상을 통하여 개인의 삶과 사회와 더불어 공동체적인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 참고문헌

(1) JOURNAL

김용희, “음악교육학의 현대적 동향”「교육논총」19집,인천교육대학교, 2002

주대창, “음악듣기 교육의 포괄적 이해”「음악과민족Music and Korea」22호 민족음악학회. 2001

(2) 단행본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출판사. 1990

———, 「음악여행」, 서울: 세광출판사, 1995

이석원, 「음악마인드 과학」, 한국음악지각인지학회 편저, 서울: 음악세계, 1999

홍세원, 「서양음악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Goelman, Daniel, 「감성지능 EQ」, 황태호 역, 서울: 비젼코리아

Mursll, J. L & Glen, M, 「음악교육심리학」, 한국음악교재연구원 역, 서울: 세광출판사.1987

(3) 학위논문

김 정, “음악교육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박순옥, “감성지능을 높이기 위한 미술교육 모델방안”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박은영, “감성지능증진을 위한 미술교육 방안연구”,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박은옥, “음악감상을 통한 신체표현이 유아의 음악성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4

이기민, “감성교육프로그램이 유아의 감성지능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이금희, “아동의 음악흥미도와 감성지능과의 상관성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채후석, “음악교육을 통한 인간형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최성경, “음악교육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논문, 2002

하귀정, “음악적 환경과 어린이의 EQ. IQ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